

역사 언어학

문 양 수
(홍익대학교)

현대 언어학을 크게 나누면 전구조주의(Pre-structuralism, 1800~1932), 구조주의(Structuralism, 1933~1956), 그리고 최근에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변형생성문법(Generative Transformational Grammar, 1957~)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전구조주의 시대에는 언어학이라고 하면 역사 언어학을 지칭하리 만큼 역사 언어학이 그 당시의 언어학 전부인 시기도 있었다.

이와같은 역사 언어학의 주된 관심사는 언어변화(linguistic change)의 연구에 있다. 그러나 언어변화 현상에 관해 우리는 아직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에 싸여 있는 것이다. 언어가 변화한다고 할 때 음성(sound)이 변화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변화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언어변화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용이하지는 결코 않은 것이다. 본 소고에서는 생성문법에서 언어변화를 어떻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 그 변화의 본질을 이해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언어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행해져 왔던 것이다. Martinet의 기능부담량(functional load), Gillieron의 동음이의어(homonymy)이론, Kuryłowicz의 유추(analogy)에 의한 설명, 점진적 음성변화(gradual sound change)이론, 그리고 음성변화(sound change)는 음성적 환경에서만 일어나고 이 음성변화에는 예외가 없다는 소장문법학자(Neogrammarian)들의 이론등 많은 연구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연구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언어학 이론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을 잃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변화에 대한 비례식유추(proportion analogy)에 의한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언어에는 많은 불규칙형들이 있다는 사실은 규칙적인 것을 만들어 내는 비례식의 결함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리고 이 비례식을 성립시키기 위함에 필요한 짝(pair)을 찾아 내기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것이라야 이 비례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항목이 될수 있느냐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운(rhyme)이 같아야 하는지? 아니면 음절수가 같아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유사하거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야 하는가? 등 비례식 성립에 대한 명확한 조건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과거에 내세운 비례식 유추에 대한 설명은 언어변화에 대한 설명이 되어 지지 못하게 된다.

음성변화가 점진적으로만 일어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는 Samoa어를 들 수 있다. Samoa 언어에서 t 가 k 로 변한 것이 불과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 t 가 k 로 변하는 중간 단계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불과 한 세대(generation)의 기간 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에 중간단계의 변화를 거쳤으리라고 믿기도 어려운 것이다. 이 Samoa어에서 $t > k$ 의 변화를 점진적 음성변화이론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Whom do you see?가 Who do you see?로 변했을때, 또 국어에서 '시혹'이 '혹시'로 변화한 전위(metathesis)현상, 어떤 모음이 삽입되게 되는 모음첨가(epenthesis)현상들도 점진적 음성변화 이

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음성변화는 음성적 환경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 종래의 주장에 반대 예들이 있다. 예를 들면 Yiddish에서 $a \rightarrow \phi / -\#$ 의 변화는 형용사 이외의 낱말에만 적용이 된다. $meyn + a]_{verb} \Rightarrow meyn$: 'I mean'으로 되는 반면 $\check{s}eyn + a]_{adj} \Rightarrow \check{s}eynə$ 'pretty'와 같이 마지막 a 는 그대로 남아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음성변화가 절대적으로 음성적 환경에서만 일어난다는 주장의 모순성을 보여주는 예들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장문법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유추(analogy)나 차용(borrowing)으로 설명하려 했을 것이다.

위와같은 종래의 언어변화에 대한 설명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고 올바른 설명을 하기 위해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은 언어에서 무엇이 변화했으며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사실을 규칙이 첨가(add)되었다든지 아니면 상실(loss)되었다든지 또는 그 규칙들을 재배열(reordering)시키는등, 규칙에 의하여 언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Hockett (1958 : 443)는 음성변화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은 언어능력(competence)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외부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언어수행(performance)에서의 변화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성문법에서는 그와 반대로 언어의 변화는 언어능력에서의 변화이지 언어수행에서의 변화가 아니라고 본다. 언어수행이론은 우리가 언어를 실제로 사용할 때에 정신적, 육체적 조건과 외부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어변화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즉 낱말을 발음할 때에 약간의 변화를 입은 발음이 더 보편화 되어 사용되고 그것이 표준 발음으로 고려되어질 때 문법은 이와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위하여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덧붙여 그들은 음성변화가 조음(articulation)이 용이한 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조음이 용이한 방향으로만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음성변화가 있는 것이다. 언어수행이론 지지자들은 약간 잘못된 언어사용이 언어체계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잘못 발음을 한다든지, 소리를 크게 낸다거나 아니면 속삭이는 소리로 말했다고 해서 이런 요소들이 언어의 본질적인 지식(knowledge)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이다. 문법구조는 아무런 변화를 입지 않게 된다. 만일 음성변화가 문법구조밖에 속하는 언어수행에서 시작된다면 문법구조는 음성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독립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변화는 언어능력의 변화이지 언어수행의 변화는 아닌 것이다. 언어변화는 음성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문법에 있어서의 변화인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문법에 있어서의 변화는 규칙체계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학이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언어능력에서의 변화는 언어 수행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나 그 역이 항상 성립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역사생성음운론의 이론에서 언어변화는 언어능력에서의 변화결과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언어변화의 연구는 그 언어문법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언어변화의 종류를 들여보면 기본적 변화 형태로 규칙첨가(rule addition)을 들 수 있고, 간편화 형태로는 규칙상실(rule loss), 규칙재배열(rule reordering), 규칙단순화(rule simplification), 그리고 재어휘화(relexicalization)를 들 수 있다.

규칙첨가(rule addition)

가장 보편적이고 주된 변화 형태는 규칙첨가(rule addition)이다. 많은 경우에서 음성변화

는 이와같은 새로운 음운규칙(phonological rule)을 그 언어의 문법에 첨가시킴으로서 가장 잘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규칙을 한 언어의 문법에 첨가할때 어디에다가 첨가하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음운부(phonological component)의 맨 끝에 첨가해야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끼어넣을 수도 있느냐? 하는 것이다. Lachman's law 라던가 Mohawk Oneida 의 예, 그외의 몇몇 예들이 규칙삽입(rule insertion)이론을 지지해 준다고 믿고 있으나 그 자료들을 분석할때 규칙삽입이 개재되지 않고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어떤 예에서는 만들어 놓은 규칙(rule) 자체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함으로 비종결규칙삽입(non-final rule insertion)을 부인하고 있는 학자들도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규칙을 어디에다 첨가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때 규칙을 문법에 첨가함으로써 그 문법이 더 긴 규칙을 가지게 되고 문법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며 그 복잡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기는 음성산물(phonetic output)도 역시 더 복잡하여 질 것이라고 생각함이 당연할지 모르나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규칙첨가는 문법을 간단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예로서 국어에 첨가다(/səmgida/)와 연기(/yəngi/)를 들어보면 국어문법에 비음동화규칙(nasal assimilation rule)이 첨가됨으로 첨가다(/səmgida/)가 성기다[səngida], 그리고 연기(/yəngi/)가 영기[yəngi]로 되는 것은 국어문법에 동화규칙(assimilation rule)이 첨가됨으로 그 결과 발음하기에 더 간단한 음으로 된다는 것은 위의 주장을 보충해 주는 재미있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국어에서 우리는 많은 규칙첨가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중에 중세국어에서 치음 ㄷ(t), ㅌ(tʰ)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이 ㄷ(t), ㅌ(tʰ)가 [i]나 [y] 앞에서는 ㅈ[c]와 ㅊ[cʰ]로 변한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를 비교해 볼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국어문법에서 무엇이 상실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얻어진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명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중세국어 문법에 무엇인가가 첨가되어 현대국어에 구개음화현상(palatalization)을 결과 되어지게 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두개의 문법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중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능력(competence)에 대한 문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현대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언어능력에 대한 문법, 이 두개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로의 이 구개음화 현상의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구개음화 법칙—t, tʰ→c, cʰ/—i 또는 y—를 중세국어의 문법에 첨가해야만 할 것이다.

규칙상실(rule loss)

규칙상실은 재어휘화(relexicalization)를 일반적으로 동시에 수반한다. 그러나 반드시 어느 종류의 규칙상실이나 다 재어휘화에 이르지 않는다. 만일 우리가 문맥규제규칙(context-sensitive rule)을 상실했을 경우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변이형태소(allomorphic variation)의 수를 줄이는 결과는 될 것이고, 문맥자유규칙(context-free rule)의 경우에서 대부분 재어휘화가 결과되어 진다. 두 형태의 규칙상실이 있는데 하나는 규칙의 부분적 상실이다(Kiparsky 1968 : 176-177). 만일 $\left[\begin{smallmatrix} V \\ \langle -long \rangle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left[\begin{smallmatrix} -back \\ \langle -low \rangle \end{smallmatrix} \right] / -C_0i$ 가 $V \rightarrow [-back] / -C_0i$ 로 변하게

되는 것은 규칙의 부분적 상실이고 우리는 이것을 간편화(simplification)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중세국어에서 기저음운(underlying phoneme) /g/의 m, n, l 뒤에서의 탈락현상이다. 15세기 초까지만 해도 남기(/namgi/), 굴기라(/kumgira/), 심구니(/simguni/)와 같은 낱말들이 15세기 초 이후에는 나모(namo), 구무(kumu), 시물(simil)과 같이 g가 없이 나타난다. 이와같은 현상을 규칙으로 다시 써 보면 $g \rightarrow \phi / [+sonorant] ______$ 와 같이 쓸 수 있다. 이 g의 탈락규칙이 중세국어에 적용되어 몰개(/molge/)와 골기(/kolgi/)들은 모래(more)와 고리(kori)등으로 변하게 되고 다음 세대는 다만 모래(more), 고리(kori)만을 듣게 되므로 g를 탈락시키는 규칙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나타나는 음성산물(phonetic output)을 기저표시(underlying representation)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g/를 제거하는 규칙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어 이 규칙이 상실되게 된다. /g/의 탈락규칙은 일부의 /g/가 /k/로 병합됨에 따라 더 일반화되어 $g \rightarrow \phi$ 와 같이 문맥자유규칙(context free rule)으로 되고 기저표시에 변화가 일어나 재어휘화(relexicalization)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규칙간편화(rule simplification)

방언의 차이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설명 방법이 바로 이 규칙간편화(rule simplification)이다. A 란 방언에서 b, d가 어말위치에서 p, t로 변화하는 반면 B 방언에서는 b, d, g가 같은 환경에서 p, t, k로 변한다면 다음과 같은 두개의 규칙을 써 볼 수가 있다.

$$A. \left[\begin{array}{l} +obstruent \\ -continuant \\ +anterior \end{array} \right] \rightarrow [-voice] / ______ \#$$

$$B. \left[\begin{array}{l} +obstruent \\ -continuant \end{array} \right] \rightarrow [-voice] / ______ \#$$

여기에서 B 방언의 규칙이 A 방언의 규칙보다 더 자연스러운 부류에 적용이 되며 규칙 자체가 더 단순하다. 이와 같이 A 방언에서 b, d 뿐 아니라 g에도 역시 적용이 될때 B 방언에서와 같이 규칙이 더 일반화 되며 더 자연스러운 부류에 적용되게 된다. 이런 규칙간편화 현상이 규칙첨가의 경우에서는 예외가 될 수도 있으나 규칙상실이나 규칙재배열의 경우에는 이런 간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에 나타나는 규칙간편화 현상은 변이형 태소의 수를 줄이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성인문법에 있어서의 변화는 보통 규칙첨가에 국한되지만 규칙상실, 규칙재배열 그리고 재어휘화와 같은 규칙간편화 현상은 어린이에게서부터 생겨나는게 보통이다. 처음에 성인문법에 있어서의 변화가 나중에는 다음 세대의 문법에 간편화 현상으로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어휘화(relexicalization)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중세국어의 /g/가 /k/와 병합(merger)되고 또 병합되지 않은 g는 어떤 환경에서나 무조건 탈락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세대는 /g/가 없는 기저형(underlying form)을 취하게 되어 기저형에 변화를 가지게 된다. 이와같은 기저표시의 변화는 결국 재어휘화를 결과되어지게 함을 보았다. 그러나 어떤 규칙이 형태음운 변이(morphophonemic variation)형을 만들어 내었을 경우 재어휘화는 일어나지 않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법속에 이와같은 규칙은 포함되어야 하는 결과가 생겨나게 된다. 주로 문맥규제규칙

«(context-sensitive rule)인 경우에는 형태음운 변이형이 나타나게 된다.

규칙 재배열(rule reordering)

마지막 한 형태의 언어변화는 규칙 재배열이다. 이런 형태의 언어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규칙의 배열순서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그 배열순서가 변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한 언어의 문법에 두 규칙이 적용되는 배열순서가 정해져서 규칙 X가 먼저 적용되고 나중에 규칙 Y가 적용되다가 나중시기에 규칙 Y가 먼저 적용되고 그후에 규칙 X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King(1969 : 153)은 현대 표준 독일어에서 이와같은 규칙 재배열(rule reordering)의 예를 들고 있다. 두개의 규칙중 하나는 어말자음 무성음화규칙(terminal devoicing rule)이고 다른 하나는 장모음화규칙(vowel lengthening rule)이다. 원래는 어말자음 무성음화규칙을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장모음화규칙을 적용하였는데 그 후에 적용 순서가 바뀌어 장모음화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어말자음 무성음화규칙이 나중에 적용되게 되었다. 예를 들면 길 'path' 을 의미하는 'veg'와 복수의 'vegə'에서

underlying	/veg	vegə/		
final devoicing	vek	—	1	
vowel lengthening	—	ve:gə	1	marked
phonetic output	[vek	ve:gə]	2	
underlying	/veg	vegə/		
vowel lengthening	ve:g	ve:gə	2	
final devoicing	ve:k	—	1	unmarked
phonetic output	[ve:k	ve:gə]	3	

Kiparsky(1968 : 199-200)는 규칙 재배열의 일반적인 방향은 marked와 unmarked의 개념에 기반을 두고 marked order는 unmarked order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즉 Less optimal order는 optimal order에 의해 대체되는 경, 향측 규칙이 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배열순서로 재배열이 행해진다고 설명 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어말자음 무성음화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장모음화규칙이 적용된 경우에는 이 규칙들이 두번 밖에 적용되지 않으나 그 반대의 배열순서로 위의 규칙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세번 적용되었다. 이와같이 위의 두 규칙이 재배열되어 적용될 때에는 세번 적용된 장모음화—어말자음 무성음화규칙의 순서로 적용되어 이 규칙들이 최대로 적용될 수 있게 재배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marked order에서 unmarked order로 변하는 경우 변이형태소(allomorphic variation)의 수가 감소된다는 사실이다. marked order에서 길 'path'는 두개의 변이형태 /vek~ve:g/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모음의 길이 (e~e:)와 성(voice)(k~g)이 다르지만 unmarked order에서는 이 두 변이형태 /ve:k~ve:g/는 단지 마지막 자음의 성(voice)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다.

Kiparsky는 재배열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marked에서 unmarked로 즉 적용빈도수가 적은데서 최대한으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칙들이 재배열된다고 주장했으며 King은 그의 개념을 약간 바꾸어 변이형태소의 수가 많은데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규칙

이 재배열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변이형태소(allomorphic variation)의 수가 적어지면서 규칙의 적용빈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발견한다면 King이 옳을 것이며 만일 변이형태소의 수를 최대한도로 늘리면서 규칙의 적용빈도가 증가되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Kiparsky가 옳다고 주장할 수 있다.

Kiparsky(1971)는 그가 일찌기 제시했던 재배열의 방향원칙이 대부분의 경우 옳게 예측되어 졌으나 그러나 많은 예들에서 그 개념이 적절치가 않음을 발견하였다. 즉 feeding과 bleeding의 개념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의 재배열이라던가 mutual bleeding의 경우 재배열의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marked와 unmarked의 개념을 포기하고 다음과 같은 두개의 재배열의 원칙을 제시하였다(그러나 그는 제시한 이 원칙에도 만족해 하지는 않고있다).

첫째는 규칙은 최대한으로 transparent하도록 배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둘째는 규칙은 paradigm에서 변이형태소의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재배열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번째 규칙은 다만 첫째 원칙이 실패되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King은 1972년 Linguistic Inquiry의 노트에서 Kiparsky의 새로운 원칙에도 역시 몇몇개의 배치되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간단히 처리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와같은 Kiparsky의 재배열에 대한 원칙이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결 론

언어변화에 대한 연구가 역사언어학의 주된 관심사인 만큼 역사언어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 언어변화에 대한 특성과 수반되는 문제들을 알아 볼 필요가 있게 되었다. 종래의 언어변화에 대한 몇몇 이론들의 모순점을 지적하였고 이 문제점들을 바로 설명하기 위해 생성문법에서는 어떻게 언어변화를 다루고 있나를 간단히 살펴 보았다. 먼저 언어변화의 형태를 규칙첨가(rule addition), 규칙상실(rule loss), 규칙재배열(rule reordering), 규칙단순화(rule simplification) 그리고 재어휘화(relexicalization)로 구분하여 언어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생성문법에서는 언어변화를 규칙이 변화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도 보았다. 또한 규칙을 재배열함에 야기되는 문제점들도 살펴 보았다.

참 고 문 헌

- Antilla, Raimo. 197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and comparative linguistics.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King, Robert 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_____. 1972. A Note on opacity and paradigm regularity. Linguistic Inquiry, Vol. III. No. 4.
- Kiparsky, Paul. 1965. Phonological chan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T.
- _____. 1971. Historical linguistics. A survey of linguistic science, William Orr Dingwall (ed). Linguistic Program/ University of Maryland.
- 이기문. 1962. 국어사개설. 서울: 민중서관.
- 허웅. 1968. 국어음운학. 서울: 정음사.

討 論

金石山(서울大) : 문선생께서 [+obstruent]→[-voice]/-#의 예로 tog, tegum의 예를 드셨는데 음성변화(sound change)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의 어휘(lexicon)에 전부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하나는 음성변화가 일어났을때 그 언어의 어휘에 있는 모든 단어에 적용되기 전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약음절인 경우에는 일반규칙(general rule)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방 흑판에 적으신 teg, tegum에서 /g/가 왜 /k/가 안 되는지 그 예외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文洋秀 : 지금 설명하려는 요지는 규칙(rule) 전체가 소실(loss)되는 것을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입니다, 만 제가 Yiddish 언어를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예문을 인용할 때 그런 예를 든 것 같습니다.

金石山 : 그리고 가령 약음절에 있어서 일반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데 약음절하게 되면 minor lexical category word만이 주로 약음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칠판에 적으신 예가 minor lexical category word인지 또는 major lexical category word인지, 만일 major lexical category word라면 좀 의심이 가고, 또 그것이 왜 적용이 안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文洋秀 : 감사합니다.